

東洋繪畫의 源形象(Urfiguration)에 對한 表現研究

1987 學術研究 助成費支援 研究論文

李 鍾 祥

東洋畫科 副教授

目 次

1. 研究 目的
2. 研究 方法
3. 理論的 研究
- a. 源形象(Urfiguration)의 含義
- b. 先形象(Präfiguration)과 源形象
4. 結 語

1. 研究 目的

東洋繪畫에 있어서 形象(figuration image)의 解析은 對象의 輪廓描寫나 外形的인 形似 혹은 形相, 形狀的 外華의 再現이라는 意味가 아닌 것이다.

藝術은 形象에 있어서 現實의 認識인 것이라도 形質에 內包(intension)되어 있는 意味를 作家의 主體의인 心想透寫에 依해 想像의 空間으로 까지 外延(extension), 擴張함으로서 그 形象에 깃드려진 精神을 推體驗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感性的 形象을 超克하여 知性的 形象으로 認識되어지는 根源的 形象性에 依한 “열려진 象”으로서의 源形象(Urfiguration)에 對한 表現研究에 主目的을 두는 것이다.

2. 研究 方法

理論的研究와 造形的研究를 並行 할 것이며 理論的研究에서는 源形象의 概念을 略述하고 J. Gantner의 先形象(Präfiguration)과 東洋美術의 源形象(Urfiguration)에 對한 比較研究를 할 것이다. 그리고 源形象은 東洋 藝術의 中核思想을 이루고 있는 氣思想과의 連繫性에 關해 言及할 것이다.

以上의 理論的研究를 바탕으로하여 造形의 表現研究를 하는데 있어 壮紙위에 水墨과 彩

色畫를 그리는 壮墨畫의 表現技法과 銅版위에 釉藥을 칠해 불에 구어내는 七寶樣式의 銅釉畫 表現技法을 研究 할 것이다.

또한 東洋의 移動視方式이 낳은 병풍樣式을 多元 視角에 依한 設置 作業으로 擴大解析해본 設屏畫의 表現技法도 研究 할 것이다.

3. 論理的 研究

東洋의 繪畫에 있어서는 自然의 原初의인 根源形象을 重視한 造形思考는 氣를 重視한 人文的 價値體系를 形成 시켜왔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東洋藝術의 根源的 形象觀을 西歐의 先形象的 美學體系와 比較 檢討 함으로서 正統의 源形象의 思想體系가 어떻게 未來의 可能性으로 다가 올 수 있는지를 探索하여 보는 것이다. 아울러 東洋繪畫의 中核的 美意識인 氣哲學의 認識體系를 바탕으로 民族의 本源의 “한” 思想을 造形精神의 基本으로 한 自生的 繪畫論을 構築하고자 한다. 此後, 東洋의 源形象에서 韓國의 “한 形象”的 造形論理와 表現研究로 더욱 研究를 具體化 할 것이다.

a. 源形象(Urfiguration)의 含義

元來 形象은 形質, 혹은 質料의 意味로서 外延의in 形相, 혹은 形狀에 對하는 말이다. 西洋에서는 스콜라(schola) 哲學의 認識說에서 使用된다.

形象은 志向의이며 表現의in 面으로 나타나는

感性的 形象과 理性的이며 思辨的(speculative)인 面으로 나타나는 知性的 形象으로 區別되기도 한다.

外界의 事物을 나타내는 形象, 또는 形相과 같은 感性的 形象은 그것에 依託해서 事物의 個別의 偶性을 認識하게 되면 여기에서 知性的 形象이 能動的 理性에 依해 나타나서 비로서 萬有의 本質이 認識되어 진다.

藝術에 있어서의 形象이란 各自 藝術家の 表現手段에 依해 實現化된 藝術家の 作品과 感情의 所產을 말한다.

따라서 藝術의 形象은 多樣한 現象界에서 一以貫之하는 必然的 關係로서의 根源現象(Urphänomen)을 具體의이고 感性的인 形態 안에 그 典型的인 特徵을 再現하고 客觀的 現實의 法則性을 反映하여 思想의in 價値를 賦與받게 되는 것이다.

b. 先形象(Präfiguration)과 源形象(Ürfiguration)

20C 西歐美術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 J. Gantner의 Präfiguration의 理論은 B. Croce의 直觀主義美學과 H. Wölfflin의 表象形式의 美學에서 抽象이 葛藤을 解決하려는 面에서 成立하는 理論이라고 볼 수 있다.

J. Gantner는 먼저 作品의 創作은 直觀學派가 믿는 것과 같이 그 即時形成되는 것이 아니며 創作은 構想하는 舜間에 實現되어 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作品의 形成은 最終的인 形象(Figuration)에 到達하기 以前에 先形象의 多岐多樣한 中間段階를 內包하는 하나의 課程인 것이다.

J. Gantner는 創作에 이르는 全課程의 經路 속에 最初의 創造의in 一步와 그 反對便에 있는 最終의in 結果와의 兩面이 存在하는 것을 提示하였다.

非物質的 先形象으로 불리우는 不可視的 先形象은 直接的으로 認識되지 않으며 오직 完成된 作品의 分析으로부터 演譯된다.

可視的 先形象은 스케치나 下圖作業, 또는 修正 等의 여러가지 狀況을 包括하고 있으며 畫面에 落筆하기 以前부터 이미 始作 될 수가 있다.

結局 J. Gantner의 Präfiguration의 理論은

H. Wölfflin의 表象形式으로부터 出發하여 finito와 non-finito와의 關係를 Fräfiguration의 概念을 通하여 밝히고 거기에서 創造的 想像의 世界를 發見하려 하고 있다.

J. Gantner의 Präfiguration의 理論을 둘러 싸고 問題가 되는 것은 特히 東洋美術의 根幹이 되고 있는 arche의 現象性, 即 理性 밑에 있으니서 概念으로 把握될 수 없는 Urphänomen의 直觀力を 通해 터득되는 根源의in 形象性이라고 말 할 수 있다.

東洋美術의 美學의 根據는 西洋의 그것과는 달리 自然과 人間이 無意識의in 統一 속에서 絶對自由의 無爲的 創造行爲로 부터 비롯 되어진다고 볼때 그것은 Präfiguration도 아니요 그렇다고 Figuration도 아니며 그것은 東洋의 arche의 形象性인 根源形象, 즉 源形象(Urfiguration)인 것이다.

東洋의 自然은 客觀的으로 觀察되고 對象으로서 分別되는, 말하자면 西洋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自然科學의in 研究와 征服의 相對的 自然과는 전혀 다른 意味를 갖는다. 우리는 언제나 藝術의이며 宗教의in 意味로 充滿 되어 있는 形而上學의in 自然과 하나가 되어 살아 왔다. 그래서 東洋의 藝術은 宗教와 倫理, 道德, 技術等 모두가 實踐的인 것에 삼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創作者인 作家自身의 人格과 被創作物인 作品 까지도 人間의 根底에서 서로 共通의in 意味를 賦與받고 있는 것이다.

東洋美術에 있어서의 自然現象을 觀照하는 態度는 外部에 對한 内部의 勝利나 二元的 對立關係가 아니며 主客의 絶對矛盾의 自己同一인 根源의 統一이다. 다만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萬有의 創造根源으로서 絶對無를 自覺하는 일이다. 여기서 無라는 것은 有에 對한 無도 아니고 有의 立場에서 생각된 絶對無의 概念도 아니다. 그것은 辯證法의in 思辨에 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情意的, 信仰의으로 밖에 理解될 수 없는 根本主體의 自覺인 것이다. 어떤 意味에서 西洋의 近代 美術이 極端의in “主觀의 支配”와 더불어 無對象으로 더욱더 自然으로 부터 離反하려는 傾向을 보이는데 反對 東洋美術은 그 進展에 있어서 造化의 根源으로, 萬有形象의 根源

으로 質料的 形象의 根源으로 自然의 本質을 찾아 들어가야만 당연한 것이다.

4. 結 語

自然의 本質을 찾아 가려는 努力은 形象의 根源, 즉 아르케的始原으로 萬有의 本體를 把握하려는 努力이다. 藝術家가 追究해 드리가는 形象의 本質도 東洋의 宇宙論의 立場에서 보면 人間을 包含하여 森羅萬象은 모두 “氣”的自己運動課程에서 생긴 現象이며 氣의 一時의 緊集狀態에 머물러 있는 變易의 한 穀拉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氣의 緊集體는 西洋에서 말하는 Energy의 物質的 概念이 아니라 어떤 靈的의 性格을 갖고 있어 物質的의 面과 精神的의 面과의 總體의 統合性을 갖고 있다.

東洋의 “氣思想”이 宇宙의 萬物을 構成하는 根源으로서 源形象의 起礎가 될뿐 아니라 生命力과 精神力의 根據가 된다. 東洋 古代哲學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易의 思想을 基底에 두고 氣思想과의 關係를 생각해 보았을때 陰陽의 氣韻이 聚合하고 散佚하는데 따라서 萬物이 形成되고 萬 가지 調和를 이르키는 宇宙現象의 根源이었다. 따라서 易에 根據하여 陰陽의 理致를 窶究하면 神氣의 情狀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畫家도 이러한 原理를 根據로 하여 하늘을 우러러 天文을 觀察하고 땅을 살펴 地理를 捷得하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 雜多한 形相들이 根源의 現象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를 贯通하게 되면 根源의 形象의 한쪽에 氣의 變幻이 있음을 感知하게 된다.

畫家가 그림을 始作 할 때에는 無意識 狀態에 들어 創作의 行爲 自體도 전혀 意識할 수 없어야 한다. 다만 作業이 끝난 然後에 난 自身의 行爲를 알 수 있을 뿐 그 課程을 連繫시켜 주는 힘은 “氣”的 根本의 理原理인 “自發的 無爲性”에서 오는 신바람(神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參 考 文 獻

- 金鎔貞, 〈第三의 哲學〉, 恩社研, 1986.
J. Gantner, Präfiguration und Wesenseinheit im Kunstwerk, Uppsala, 1972.
金容沃, 〈老子哲學 이것이다 上〉, 통나루, 1989.
鄭璇, 〈東西思想의 만남〉, 螢雪出版社, 1982.
李鍾祥, 〈東洋의 氣思想과 氣韻論 研究〉, 學位論文, 1988.
金炳宗, 〈中國繪畫의 造形論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源形象 89-1 130×160cm 한지, 수묵, 진채 1989



源形象 B 133×165cm 장지에 먹, 채색 1988



源形象 89-4 120×180cm 장지에 먹, 채색. 1989



源形象 89-6 133×165cm 장지에 먹, 채색 1989



源形象 89-19 133×165cm 장지에 먹, 채색 1989



源形象 89-25 82×66cm 장지에 먹, 채색 1989



源形象 89-20 133×165cm 장지에 먹, 채색 1989